

2016년 3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2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기계소재표준과 과장 임현진(043-870-5370), 박용균 연구사(043-870-5339)

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,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

- 품질성능을 갖춘 모든 소재, 수도꼭지에 사용토록 KS 규격 완화 개정 -

-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체대식, 이하 국표원)은 플라스틱, 스테인리스 스틸, 탄소섬유로 만든 수도꼭지도 욕실, 주방 등에서 쓸 수 있도록 국가표준(KSB 2331)을 개정한다. 현행 KS는 수도꼭지 몸통 소재로 금속(구리 및 구리합금)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다.
- 국표원은 KS 개정안을 3월 23일 예고고시(3.23.~5.22.)하고, 수도꼭지 생산자, 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7월경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.



- 1 -



- 수도꼭지 국가표준(KSB 2331)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,
- 수도꼭지 몸통으로 플라스틱 등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내한 성능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질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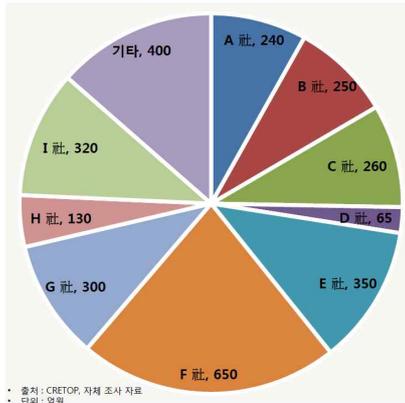
도 금 성	도금이 갈라지거나 벗겨지는 인한 불량 여부 확인
내 한 성	동결로 인한 변형이나 파손 여부 확인
내 열 성	온수로 인한 변형이나 파손 여부 확인
열충격성	고온(80℃)과 상온(15℃)이 반복되는 과정에서의 파손 여부 확인

- 또한, 급수용 수도꼭지의 용출성능 기준은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여 KS인증 시 중복시험 논란을 해소하였다.
- 수도꼭지 KS 개정으로 구리 등 수입 원자재를 절감할 뿐 아니라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표원 강병구 표준정책국장은 “표준이 제품의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간에 호환성을 갖게 하는 등 순기능이 크지만, 수도꼭지의 소재 규정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,
- 앞으로도 국가표준(KS)의 경쟁 제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성능 표준(performance standard)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참고 1 수도권지 국내 시장 규모(2015년도)

- 수도권지 KS 인증업체 : 73개 업체(중국 5개 업체 포함)
 - 수도권지 몸통 소재를 구리 및 구리합금만 사용한 업체
- 수도권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,000억원으로, 8개 업체에서 약 80%(약 2,500억원)를 공급

< 수도권지 시장 규모 >



업체	내수	수출
A社	240	-
B社	250	-
C社	260	2
D社	65	-
E社	350	-
F社	650	5
G社	300	-
H社	130	-
I社	320	-
기타	400	-
합계	2,965	7

출처 : CRETOP, 자체 조사 자료
단위 : 억원

* CRETOP : 국내 기업신용평가 조사 및 평가 기관



MIN
TRA

참고 2 수도권지에 사용된 재료

플라스틱		
스테인리스 스틸		
탄소섬유		
구리		